

# “국가정원에서 ‘순천의 밤’ 만끽하세요”



10월부터 나이트 가든 투어  
1일 최대 20명... 온라인 예약  
“체류형 관광으로 경제 활력”

순천시가 10월부터 ‘순천 나이트 가든 투어’를 운영한다. 4월 한 달 간 시범운영한 ‘나이트 가든 투어’를 업그레이드해 도심까지 확대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이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 나이트 가든 투어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후 6시2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하며, 1일 최대 2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순천 나이트 가든 투어’는 순천역에서 시작해 순천 도심 곳곳을 둘러보고 국가정원의 나이트 가든 투어를 즐기는 코스다. 도심투어는 남문터 광장, 중앙시장, 원도심 거리와 옥천, 철도관사 마을 등 순천이라는 도시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동선이다. 나이트가든 투어는 시크릿 어드벤처, 수상 퍼레이드, 스페이스브릿지 등 정원의 새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말에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가든투어와 함께 원도심 자유투어를 추가 코스로 구성했다.

순천의 밤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 순천

나이트 가든 투어는 도심투어버스와 정원드림호 선상체험에서 순천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투어 예약은 별도 예약시스템(www.nightgardentour.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평일 1만9000원, 주말 2만9000원이다. 투어 참여와 관련된 유의사항은 예약시스템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야간투어 프로그램은 순천이라는 도시를 제대로 체험하고, 낮과 밤을 제대로 즐기는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구례군, 7월 말까지 880명 대상

구례군은 다가오는 16일부터 7월 말까지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조사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흡연, 음주 등 국민들의 건강행태와 이환, 의료 이용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

표본가구로 선정된 88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자 조사표(태블릿PC)를 이용해 일대일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올 연말에 발표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자료나 지역보건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측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보건의료원(061-780-2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

## 어머니텃밭 장터서 어버이날 행사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장흥군은 최근 정남진장흥 토요시장 어머니텃밭 참여자를 대상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토요시장 어머니텃밭 참여 어르신 80명에게 카네이션과 떡을 전달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어르신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토요시장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다”며 “활기 넘치는 토요시장으로 탈바꿈하고,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주 토요일(장날 제외) 열리는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어머니텃밭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농수산물을 판매한다.

장흥=김전환 기자



장흥군이 최근 정남진장흥 토요시장 어머니텃밭 참여자를 대상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다.

장흥군 제공



## 어버이날 맞이 ‘효 사랑 큰잔치’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는 8일 여수시노인복지관 앞마당에서 어버이날 맞이 효(孝)사랑 큰잔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여수시노인복지관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이창민 지사장 이하 임직원, 복지관 직원 및 봉사단이 참여해 관내 이용 고연령 어르신 300여 분을 모시고 가슴에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수종의 다과류와 한방 파스 등 장수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어버이날 맞이 효(孝)사랑 큰잔치 나눔 행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독거 어르신들에게 노인 공경의 의미로 카네이션과 장수선물세트를 전달함으로써 어버이날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하고자 기획됐다.

여수아이닷컴과 함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보육 거주 아동들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휴대용 선풍기를 제공했다.

이창민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장은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과 장수선물세트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며 “여수권지사는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 순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위한 MOU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등 대학 연계 문화콘텐츠 육성기반

순천시는 지난 7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협력체의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지역협력체는 순천시장과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관내 대학, 고등학교, 기업, 교육단체 등 지역의 14개의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협력체는 교육발전특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지원하고 공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지역 기업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약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기획서 마련 △교육 발전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순천시민의 특색있는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발굴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사업을 순천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지



순천시는 지난 7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협력체의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순천시 제공

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순천대글로벌 30 지정 등과 연계해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지역의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돌봄교육 및 초·중·고에 순천의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순천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순천시를 비롯한 유

관단체들과 함께 노력하여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지역 주체가 되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선정된 지역은 3년간 최대 30억원에서 10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공모 신청은 오는 6월30일까지이며 7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 고흥군, 신축 공동주택 점검 민·관 합동 실시

고흥군은 지난 7일 민·관 합동으로 신축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품질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민·관 합동점검단은 건축사, 기술사, 공무원, 입주 예정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점검 대상은 건축구조,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9개 분야이며, 점검자는 관련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점검은 고흥읍 남계리 공동주택 등 2개소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건물 하자 및 주차장, 공공시설 등 시공상태를 점검표에 의해 꼼꼼히 살펴봤으며, 특히 주택입주 예정자가 함께 참여해 생활 주민 마인드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설비(2건), 건축시공(5건), 전기·통신(6건), 조경(3건) 등 20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에 통보해 입주 전에 문제점은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 전 합동점검은 주민의 실생활 전에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함으로써 공동생활자의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개개인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 구례군 ‘이달의 새농민상’ 이재현·이진숙 부부 수상

농협구례군지부(지부장 이성재)는 지난 2일 구례축협(조합장 최정범) 이재현·이진숙 부부가 농협중앙회가 선별, 시상하는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현·이진숙씨 부부는 청우농장을 운영하며 한우 사육과 수도작 재배 등 농축업에 25년간 매진 해오고 있다. 이들 부부는 구례축협 조합원으로 조합사업 전이용과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역 내 봉사활동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변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